

외국 NGO/ NPO 활동사례 3

야베강을 잇는 모임



관련단체
코너

3

River & Culture

1. 단체의 개요



오민근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
CRC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지문위원
(ufo1009@hanmail.net)

야베촌에 원류가 있는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市町村)를 흘러 아리아케바다에 이르는 길이 61km의 강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를 지키고 기르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야베강 유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자, 2005년 11월 26일에 발족한 야베강 유역의 단체와 그룹에 의해 결성된 야베강 유역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야베강을 잇는 모임’은 八女森林組合, GW福岡, 山村塾, 立花会, 八女水の会, 日本野鳥の会筑後, エコネットちくご, 堀と自然を守る会, NPO法人有明会, 水の会和 같이 10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 활동 분야

‘야베강을 잇는 모임’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www.yabegawa.net>

- (1) 유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 (2) 유역의 상하류 교류
- (3) 유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
- (4) 유역에서의 체험 및 학습
- (5) 기타 모임 설립 목적을 달성 및 계발에 필요한 것

- 대처 형태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 아베강 쓰레기 연구회
 - 지구(地區) 간담회
 - 어린이들과의 학습회
 - 쓰레기 조사와 검토
 - 심포지엄 등의 개최

3. 주요 프로젝트

(1) 아베강 경관프로젝트

• 아베강 경관프로젝트는 유역의 역사문화, 생태계 등에 대해 모두가 생각하고, 경관자원을 미래에 남겨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아베강은 久留米藩・柳川藩의 경계하천으로서 유역 독자의 문화 및 자연을 길러왔다. 회수로 등의 역사적 시설 및 사찰과 신사, 전통축제, 고유의 생물종 등의 '경관자원'이 지역에서 잘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유역전체에 공유되도록 하고,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자, 지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힘을 높이고, 연계를 넓히면서, 금지를 가지고 지켜나가고자 하고 있다.

- field work(사람과 자원의 발굴)
- 楽校(인재육성)
- 오솔길
- 경관보전
- 정보발신



field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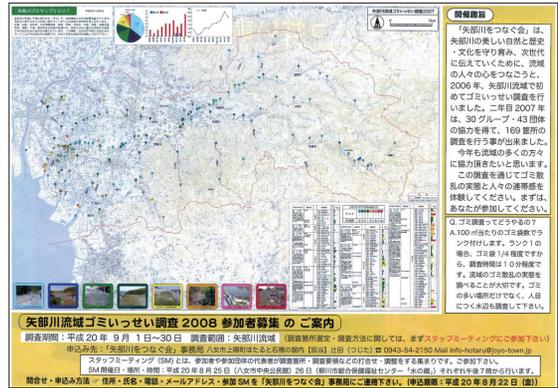
楽校



万灯祭

(2) 아베강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

• 아베강유역의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대처로써, 자연 및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유역의 주민 및 사업자, 행정의 연계를 쌓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베강 쓰레기지도(2007)

• 이러한 활동 중에서, 특히 쓰레기 조사는 2006년부터 매년 1회, 수년에 버려진 쓰레기를 조사하고, 유역 전역의 상황을 나타내는 쓰레기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22개 그룹과 35개 단체의 협력을 얻어 95개소를 조사하였고, 2007년에는 30개 그룹과 43개 단체가 169개소를 조사하였을 정도로 그 관심도와 효과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4. 활동성과

'아베강을 잇는 모임'의 이러한 활동은, 생활환경 및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줄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강을 가꿔나가기 위해 인접한 다양한 단체와 조직, 행정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나감으로써 지역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베강을 잇는 모임'은 활동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블로그(<http://yabegawa.jugem.jp/>)를 운영하고 있다.

